

미술 재료와 도구

소묘

- **연필:** 흑연의 양에 따라 4B, 2B, B, HB, 2H 등으로 나뉘며 흐리고 딱딱한 정도는 H(hard), 진하고 무른 정도는 B(black)로 구분한다.
- **펜과 잉크:** 잉크를 묻혀 사용하며 펜촉의 크기에 따라 세밀하거나 굵고 진한 선을 그을 수 있다.
- **목탄:** 일종의 숯으로 명암의 표현이 자유롭고, 즉흥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에 효과적이다. 완성 후에는 정착액을 뿌려 보존한다.
- **콩테:** 목탄이나 파스텔의 효과와 비슷하지만 농도가 진하고 화면의 부착력도 우수하다. 선으로 빠르게 묘사하는 데에 보다 적합하다.
- **색연필:** 유성과 수성이 있으며 수채 색연필은 색연필로 먼저 그린 후 물에 적신 붓으로 수채화처럼 표현할 수 있다.
- **파스텔:** 마른 색채 가루로 된 작은 막대로 겹쳐 칠하고 문지름으로써 부드러운 색채 표현이 가능하다. 완성 후에는 정착액을 뿌려 보관해야 한다.
- **크레용:** 색상이 다양하나, 색조가 어리고 딱딱하며 혼색은 어렵다.
- **크레파스(오일 파스텔):** 크레용보다 부드러우며 약간의 혼색이 가능하다.
- **사인펜:** 색상이 다양하며 건조가 빠르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. 실용적인 분야뿐 아니라 회화의 영역에도 폭넓게 사용된다. 부드러우나 농도 조절이 힘들다. 시간이 지나면 색이 연해지는 퇴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.

그 외 재료

- **정착액:** 연필, 목탄, 파스텔 등을 사용할 때 완성 작품에 뿌려 색가루가 화면에 고착되도록 한다.
- **종이:** 드로잉, 수채화, 파스텔 등 표현 기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종이가 사용된다.

수채화

- **수채 물감:** 물의 농도로 밝기를 조절하고 투명감이 있어 겹치는 표현을 할 수 있다. 하양, 검정으로 밝기를 조절할 경우 불투명 표현을 할 수 있다.
- **팔레트:** 흰색의 플라스틱이나 하양 에나멜로 처리한 팔레트는 혼색할 때 투명 물감의 색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 편리하다.
- **붓과 물통:** 탄력 있는 수채화 전용 붓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물은 세척과 물감 농도 조절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통에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. 이를 위해 칸막이가 있는 물통도 있다.



유화

- **유채 물감:** 물감을 식물성 기름에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마르는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덧칠이 가능하며 깊고 은은한 색감, 광택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.
- **나이프:** 주된 용도는 물감을 떼내고 섞거나 긁어내는 것이지만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.
- **기름과 기름통:** 기름은 물감을 녹이고 캔버스에 고착시키기 위해 사용된다. 송진이 주성분인 테레빈유와 아마씨의 기름인 린시드유 등이 사용된다.
- **팔레트, 석유통:** 단단한 붓끝과 나이프 사용에 적합한 나무 팔레트를 주로 사용한다. 석유통은 붓 세척에 사용된다.
- **캔버스:** 나무틀에 종이나 천을 고정시켜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한다.



아크릴화

- **아크릴 물감:** 고착력이 우수하여 다양한 재질에 적용 가능하지만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작 시간에 유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.
- **붓:** 모질에 따라 아크릴화용 붓, 유화용 붓, 수채화용 붓 등 모두 사용할 수 있다.
- **팔레트:** 아크릴 물감은 플라스틱 같이 매끈한 재질이 좋다. 주로 코팅된 일회용 종이 팔레트를 많이 사용한다.

조각

- **석재와 목재:** 석재는 주로 대리석이나 화강암이 쓰이며 목재는 다양한 나무를 사용한다.
- **쇠망치:** 정과 함께 재료를 깎아 내거나 쪼갤 때 사용한다.
- **정:** 돌을 깨거나 쪼아낼 때,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, 요즘은 전기를 이용한 전동 정을 사용하기도 한다.
- **줄:** 표면을 쓸거나 깎는 데 사용한다.
- **사포:** 마무리를 위해 표면을 문질러 다듬는 데 사용한다.
- **전동 그라인더:** 공작물의 면을 깎는 기계로 표면을 다듬을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.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 등이 필요하다.
- **나무망치, 고무망치:** 쇠망치로 두드리면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두드릴 때 사용한다.
- **끌:** 망치로 한 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사용한다.
- **목조용 조각도:** 파는 방법에 따라 여러 모양의 날이 있다.



소조

- **찰흙:** 점토와 유토가 있으며 점토는 잘 마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제작 도중 자주 물을 뿌려 마르지 않도록 하고, 보관할 때는 밀봉하여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. 유토는 기름 성분이 포함된 인공 점토로 잘 마르지 잘 않는 특징이 있다. 석고형을 뜨려면 석고 가루, 고무 그릇, 주걱, 고무망치, 물, 이탈제 등이 필요하다.
- **석고 가루:** 물에 개면 바로 굳는 성질이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개어서 사용한다.
- **이서체(부리제):** 주로 주방울 액체 세제를 사용한다.

판화

• 블록 판화

- 판의 종류: 나무판, 고무, 리놀륨, 아크릴 등을 이용한다.
- 새기는 도구: 칼의 모양에 따라 창칼, 끌칼, 세모칼, 둥근칼 등이 사용된다.
- 그 외: 나이프, 롤러, 바렌, 프레스기 등이 사용된다.

• 오목 판화

- 판의 종류: 동판, 아연판, 아크릴 판 등이 있다.
- 니들(송곳): 판을 긁어 제판할 때 사용한다.
- 그라운드: 에칭에서 니들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부식시킬 선 이외의 모든 부분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판에 입힌다.
- 부식액: 에칭에서 굵은 선을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, 주로 질산이나 염화제이철을 사용한다.
- 로커: 메조틴트를 할 때 판에 무수히 많고 작은 점들을 만들어 준다.
- 그 외: 그라운드를 닦아낼 때 사용할 깨끗한 천과 석유, 나이프, 잉크, 롤러, 프레스 등이 필요하다.

• 평판화

- 판의 종류: 석판과 모노타이프(유리, 아크릴 판, 종이 등)가 있다.
- 그리는 재료: 유성 매직, 리스크레용, 해먹 등의 유성 재료를 사용한다.
- 그 외: 잉크, 롤러, 스펀지, 프레스 등이 필요하다.

• 공판화

스텐실

- 판의 종류: 종이, 천, 플라스틱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.
- 그 외: 구멍을 만들 판새기는 도구, 물감 또는 잉크, 붓이나 스펀지 또는 스퀴지 등이 필요하다.

실크 스크린

- 판의 종류: 나무 틀에 실크나 나일론으로 망을 씌워 판을 사용한다.
- 그 외: 잉크, 잉크를 밀어내듯 고르게 바를 스퀴지, 판을 새기는 도구, 감광액을 얇고 고르게 스크린에 퍼 바를 때 사용하는 바게트, 그외 롤러, 칼, 가위, 스펀지 등이 필요하다.



서예, 전각과 한국화

- 종이(紙, 紙): 화선지가 널리 쓰이며, 질기면서 부드럽고 흡수력이 강한 것이 좋다.
- 붓: 서예와 수묵화에 쓰이는 붓은 붓촉이 길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으며 채색용 붓은 털이 많고 부드러우며 짧아야 쓰기에 편하다. 평붓은 밑색을 칠하거나 풀이나 물을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.
- 먹, 먹물(墨, 墨): 먹은 불에 태운 그을음을 모아 만드는데, 곱게 갈리고 맑은 향이 나며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다.
- 베틀(硯, 硯), 연적(硯滴): 베틀은 먹이 잘 갈리고 베틀 표면의 먹물이 잘 마르지 않는 것이 좋다. 연적은 먹을 갈 때 사용할 물을 담아 두는 용기이다.
- 서진(書鑢) 또는 문진(文鑢): 글을 쓸 때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 놓는 도구를 말한다.
- 붓발, 붓걸이: 사용하지 않는 붓은 깨끗이 씻어 평소에는 붓걸이에 걸어 두고 이동 시 붓발에 담아 둔다.
- 담요: 책상 위에서 담요를 깔면 먹이 번지는 것을 줄여 주고 책상에 먹이 묻는 것을 막아 준다.

- 물감, 물감 접시: 광석 물질로 만든 석채, 가루로 되어 있어 아교 물에 개어 쓰는 분채, 색상이 맑은 안채, 사용하기 편리한 튜브 물감 등이 있다.
- 아교: 어패류나 동물의 가죽, 힘줄, 뼈 등을 고아서 만들며, 채색 물감에 섞어 사용하여 한지에 고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. 색이 번지지 않고 그림을 상하지 않게 한다. 막대 아교, 알 아교가 있다.
- 전각도(篆刻刀): 전각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칼이며, 대도는 폭이 1cm, 중도는 7~8mm, 소도는 5mm 이내이다.
- 인재(印材, 篆刻石): 칼이 들어가는 돌이라면 대개 전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인재는 생산되는 지방의 이름을 따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습용 돌은 주로 해남산 돌을 사용한다.
- 인주(印朱):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색료이다.
- 사포: 인장을 새기기에 앞서 인재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. 거친 사포와 부드러운 사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